

‘친밀기대 위배’ 상황에서의 오해에 관한 실험 연구¹⁾

안 미 영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필자의 대인관계에서의 오해과정에 관한 모형(안미영, 1995)에서 제안된 대표적인 오해 상황 중에서 ‘친밀기대 위배’의 오해 상황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제시된 모형에 따라 오해가 일어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친밀기대 위배’의 오해 상황 중 조작된 구체적인 오해 상황은 ‘나에게 힘든 일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험 결과,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상대방의 돕지 않는 행동에 대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란 자기 참조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친애욕구 수준의 차이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었을 때만 두드러졌다. 상대방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었을 때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섭섭함의 오해 감정도 더 빈번하게 경험하였다.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들 내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었을 때가 예상할 수 없었을 때보다 섭섭한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필자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오해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안미영, 1993, 1995의 연구 1, 2, 및 3)을 통해 ‘오해’ 개념을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과정에 관한 모형을 가정하였다. 오해과정에 관한 모형의 주요 부분들을 검증한 결과 제시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오해’는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을 향한 상대방의 부적인 의도나 감정, 및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하는 것으로서 부적 감정을 동반한 사고과정이라고 정의²⁾되었다. 오해 과정에 관한 모형에서는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충족받고자 하는 친애욕구나 친밀욕구³⁾, 그리고 자존심 유지의 욕구와 같은 대인간

욕구들이 있으며, 이 욕구들에서 비롯된 기대들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지각과 차이가 남으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고 보았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

- 2) 오해 경험에는 정적인 오해(정적인 감정이 수반된 정적인 자기 참조적 귀인)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오해란 용어보다는 ‘착각’이란 용어로 기술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오해 경험의 전체 사례 중에서 매우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안미영(1995)의 연구 1에서는 전체 사례의 3.0%에 해당), 또 오해 당시의 심리적인 충격 역시 적어서 대인관계에서 크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 오해만을 오해의 정의 안에 포함시켰다.
- 3) 두 욕구의 구별은 McAdams(1980)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그는 친애욕구(need for affiliation)가 ‘배척에의 두려움’과 같은 애착동기의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해 왔다고 보고, 친애욕구의 긍정적인 측면을 친밀동기(intimacy motive)란 용어로 기술하였다. 필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행동들 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나 기대를 무너뜨리는 행동들이 친밀욕구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신뢰감이나 기대란 어느 정도의 친밀감이 형성된 후에나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본 논문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5)의 일부(실험 7)로서 출판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본 논문을 지도해 주신 차재호 교수님과 심사위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 행동들은 ‘거리를 두는’ 오해 상황, ‘친밀 기대 위배’의 오해 상황, 그리고 ‘자존심 위협’의 오해 상황이란 범주로 묶여졌다. ‘거리를 두는’ 오해 상황에 포함되는 오해 행동들은 ‘자신의 속애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어려워하고 어색해 하는’ 등이며, ‘친밀기대 위배’의 오해 상황에 포함되는 오해 행동들은 ‘따돌린다’거나 ‘무관심하고 배려해 주지 않는다’ 행동들이다. 또 ‘자존심 위협’의 오해 상황에는 ‘잔소리를 한다’거나 ‘결점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행동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기대와 어긋나는 부적 성과를 겪게 될 때, 사람들은 불쾌감, 화, 섭섭함 등의 부적 감정들을 경험하며, 동시에 ‘나를 격의없는 사이로 생각하지 않는 가보다’라든가, ‘나를 싫어하나보다’라든가, ‘나를 무시하나보다’라는 식의 자기 참조적(self-referent)인 생각을 하게 된다. 오해란 오해자가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이 오해자 자신을 향한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 및 동기에서 나온 것으로 추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귀인의 한 유형으로서 자기참조적 귀인이라고 칭하였다. 즉,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나 동기의 표적이 자신이라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오해의 결과로 오해자와 그 관계는 인지적 및 행동적인 영향을 입게 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친밀기대 위배’의 오해 상황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오해 과정의 모형에 따라 오해가 일어나는지를 검증하려고 하였다. ‘친밀기대 위배’의

상황으로 선정된 구체적인 오해 상황은 ‘내게 힘든 일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오해의 과정을 논하면서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충족 받고자 하는 대인간 욕구들을 갖고 있음을 가정하였고 오해는 오해자가 바라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기대와 상대방이 보이는 실제 행동간에 격차가 있음으로 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이 보이는 오해 유발 행동을 고정시키고 피험자인 오해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행동의 기대를 두 가지 변인으로 조작하였다. 그 하나는 (1)피험자 자신의 개인차 변인인 친애욕구 수준을 통해서이고 다른 한 가지는 (2)상대방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기 이전에 보여주었던 행동을 통해서이다. 친애욕구 수준을 변인으로 생각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내게 힘든 일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행동이 친애나 친밀욕구와 관련된 오해 행동이기 때문이다. 친밀욕구를 측정하는 타당화된 국내 검사가 없으며 두 욕구가 모두 애착동기를 채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타당화된 국내 검사가 있는 친애욕구를 채는 측정구를 사용하였다. 기대수준에 작용하는 이 두 가지 변인은 기대의 각기 다른 면을 다루고 있다. 친애욕구를 통한 기대는 상대방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소망(wish)에서 나온 특정 행동에 대한 지향을 가리키며, 개인이 처한 현재의 상황(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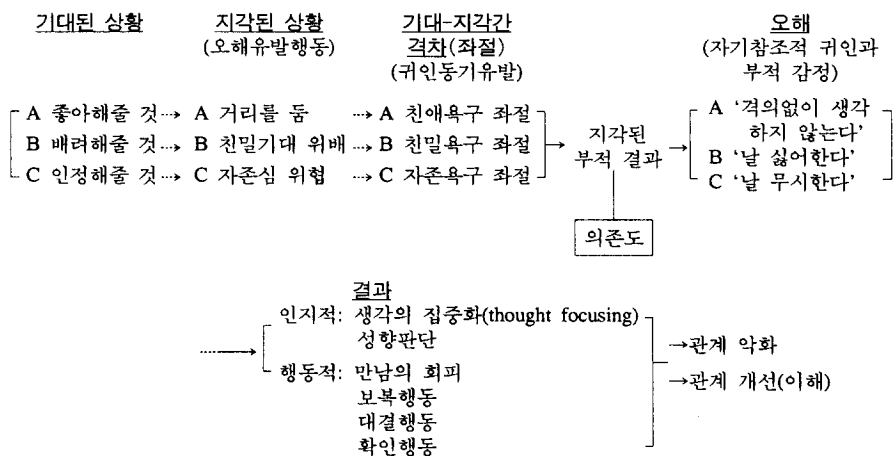


그림 1. 대인관계에서의 오해 과정의 모형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여주었던 과거 행동을 통해 형성된 기대는 예상된(expected) 상대방의 행동 방향을 가리킨다.

피험자의 친애욕구 수준은 자신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친애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행동을 보이기를 바라는 바람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그런 행동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인다고 가정할 수 있다. 몇몇 연구자들(Hill, 1987, 1991; Wong & Csikszentmihalyi, 1991)은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따뜻한 파트너를 더 찾으며 친구와 함께 있기를 더 소망하고 혼자 있기를 덜 원함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친애욕구가 큰 사람일수록 자신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상대방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 있다면 그 상대방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를 더 바랄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돕지 않는다면 친애욕구가 큰 사람일수록 기대-실제간 격차를 더 크게 느끼게 되며 더 큰 오해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상대방이 보여주기를 바라는 행동에 대한 기대는 상대방이 피험자에게 보여 주었던 이전 행동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만일 개인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여기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서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보였던 상대방의 행동이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도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리라고 예상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런 이전 행동이 없었다면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지를 예상하기가 힘들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처한 현재 상황 이전에 상대방의 자발적인 도움 행동이 있거나 없게 함으로써 현재 상황에서의 상대방의 도움 행동에 대한 기대가 있거나 없도록 조작하였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기대가 있는 조건에서 기대-실제간 격차가 있을 것이며 이 조건에서 오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가설 1.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예상이 있고 그 예상에 어긋나는 실제 행동이 있을 때 오해를 하게 될 것이다.

가설 2.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동일한 행동에 대해 친애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대-실제간 격차를 더 크게 느끼며 따라서, 오해를 더 많이 할 것이다.

이 가설들로부터 예상되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예언 1. 상대방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참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며 오해 감정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예상이 없었을 때는 상대방이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 행동을 해도 자기 참조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며 섭섭함의 오해 감정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예언 2. 상대방이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친애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이 친애욕구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자기 참조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며 섭섭함의 오해 감정을 더 느낄 것이다.

예언 3. 친애욕구 수준의 효과는 상대방이 도와줄 것이라는 예상을 할 때가 그런 예상이 없을 때보다 더 두드러질 것이다.

방 법

피험자

피험자들은 부산대학교에서 교양심리를 듣는 79명의 1학년 여학생들로서 학점이수의 일부로서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들은 실험참가점수를 받게 되어 있다. 모든 피험자들은 실험협조자라 모르는 사이이었다. 이 중에서 실험협조자보다 더 빨리 과제를 끝낸 2명의 피험자('예상 없음' 조건에 1명, '예상 있음' 조건에 1명), 실수로 과제를 못 끝낸 피험자 1명('예상 있음' 조건), 실험협조자의 행동에 의심한 피험자 1명('예상 없음' 조건)의 자료는 분석

4) 안미영(1995, 연구 1)에서 자신에게 힘든 일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도와주지 않아서 오해가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경험된 감정은 섭섭함 또는 야속함이었다.

에서 제외되었다. 분석에는 ‘예상 없음’ 조건의 37명, ‘예상 있음’ 조건의 38명의 피험자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45분-50분 정도였으며 개별 실험으로 행해졌다. 실험협조자는 두 명의 심리학 학과 1학년 여학생이었다.

독립변인

친애육구의 수준. 친애육구는 초기 연구들(Atkinson, Heynes, & Veroff, 1954; Byune, 1961; Rosenfeld & Franklin, 1966; Shipley & Veroff, 1952)에서는 주로 TA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나 근래에는 Mehrabian (1970)을 위시하여 몇몇 측정구 제작자들(차재호, 1983; Hill, 1987, 1991; Jackson, 1984; Wong & Csikszentmihalyi, 199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측정구들 중에서 Mehrabian (1970)의 친애육구척도를 토대로 차재호(1983)가 제작한 항목형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검사의 신뢰성(검사-재검사 신뢰도=.91, Cronbach α =.81)이나 구인타당성(construct validity)이 상당히 높으며(차재호와 정지원, 1990), 또한 문항의 내용이 거부상황을 비롯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본 실험의 피험자들에게 이 검사를 실시하여 나타난 친애육구 점수의 평균분포에서 중앙치($med=1.00$, $sd=.60$)를 기준으로 하여 고/저 집단으로 나누었다. 친애육구 고, 저 집단 내에서의 두 예상유무집단 간의 친애육구 점수의 평균에는 차이가 없었다(표 1). 상대방의 도움 행동에 대한 예상. 종속변인을 측정할 표적과제(글자만들기)를 하기 전에 피험자들로 하여금 개별적인 과제들을 수행하게 하였다. 개별적인 과제들은 코팅과제이거나 별표 그리는 과제이었다. 이 중에서 코팅과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요구되는 과제였는데 모든 실제 피험자들은 이 과제를 하도록

조작하였다. 반면에 같이 작업하는 다른 피험자(실험협조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쉬운 과제인 별표 그리는 과제를 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험협조자인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일만을 하고 있도록 함으로써 피험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 상대방이 자신을 도와 줄 것으로 예상되거나 예상되지 않게 하였다.

이러한 개별적인 과제의 수행 과정이 미래의 도움이 요구되는 가능한 상황에서의 도움행동에 대한 예상을 실제로 일으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7명의 피험자들(‘예상없음’ 조건의 8명과 ‘예상있음’ 조건의 9명)로 예비실험을 하였다. 본 실험에서 직접 조사하지 못한 이유는 개별과제 이후에 도움행동에 대한 예상여부를 측정한다면 요구특성이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표적과제(글자만들기 과제)에서 상대방이 도와주지 않았던 경험을 겪은 이후에 회고적으로 ‘상대방이 이 과제를 얼마나 도와줄 것으로 예상했는지’를 질문하는 것도 앞선 개별과제를 통해 형성되었을 예상을 반영하는 답변보다는 표적과제가 제시된 상황조건에 대한 판단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별도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여 개별 과제가 끝난 후 피험자들에게 “만약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일이 있다면 상대방이 당신을 얼마나 도와주리라고 생각됩니까?”란 질문을 하였다. -5점(도움 없음)에서 +5점(도움 있음)으로 된 척도에 나타난 두 조건에서의 자신을 도와 줄 것이란 예상의 평균은 ‘예상 없음’ 조건에서 2.75($SD=1.49$) 대 ‘예상 있음’ 조건에서 4.33($SD=.87$)으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였다($F=7.41$, $df=1$, 15 , $p<.05$).

실험설계

2(친애육구 수준의 고저)×2(도움행동에 대한 예상형성과 예상 없음)의 독립집단 설계였다.

종속변인

종속측정치는 표적과제인 글자만들기 과제를 수행

표 1. 예상유무와 친애육구 고저집단의 친애육구 점수의 평균

	예상 없음	예상 있음
저친애	.57(n=19)	.43(n=19)
고친애	1.41(n=18)	1.51(n=19)
전 체	.97	.97

한 후 질문지를 통해 측정되었다. 상대방이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의 그런 행동이 자기 참조적인 생각('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가보다')과 상대방의 경쟁적 성격에 관한 생각('상대방이 경쟁심이 많은 사람이다')이 얼마나 들게 만들었는지를 0점-5점 척도(전혀 안됨--아주 많이 됨) 상에서 각각 평정하게 하였다. 오해를 부적 감정을 동반한 자기 참조적 귀인으로 정의하였고 상대방의 성격에 관한 판단은 오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이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해 독립변인의 효과가 상대방의 성격에 관한 판단에서보다는 자기참조적 귀인의 평정에서 더 잘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한가지 주된 중속변인은 상대방이 돕지 않았을 때 느낀 감정들에 대한 평정이었다.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을 '섭섭했다', '불쾌했다', '기분 좋았다', '당황스러웠다', '별로 느낀 감정이 없었다', '기타' 중에서 중다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정도를 1점(아주 조금)-5점(아주 많이)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이 외에 그런 감정 상태에서 떠올랐던 주된 생각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나를 좋아하보다' '나에 대한 호감이 그다지 크지 않구나' '(상대방이)경쟁심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어휘력이 너무 없다' '별다른 생각난 것이 없다' 의 선지들 중에서 한가지만 자유선택하게 하였다. 또, '글자만들기 과제에서(도움을 요청하는) 첫번 쪽지를 보낼 때, 상대방이 당신을 얼마나 도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까'의 질문과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었으면' 하고 바란 정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과제의 종류 및 사용 재료

실험에서는 모두 4가지 종류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우선은 낯선 피험자들(그 중 한 사람은 실험협조자) 간에 유대감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 두 사람의 협동이 요구되는 '삼각통 만드는' 과제가 있었고, 피험자 각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과제로서 '코팅' 과제와 '별표 그리기' 과제의 두 종류가 있었다. 이 과제들을 하면서 상대방의 도움행동에 대한 예상유무를 조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오해상황을 설정한 표적

과제로서 '글자만들기' 과제가 있었다.

'삼각통 만드는' 과제. 이 과제는 실험실에서 처음 만나게 된 두 사람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시켜주기 위해 고안된 과제이다. 피험자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과제로서 3개의 판지를 갖고 삼각통을 만들게 하였다. 두 사람이 협동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 판지를 바닥에 대지 않고 손에 들고서만 작업을 하게 하였고 작업에 국한된 대화를 허용하였다. 피험자들에게는 가로 13cm, 세로 16cm, 두께 5mm의 압축 스토폴로 된 직사각형 모양의 판지 6개와 셀로판 테이프, 및 칼이 제공되었다.

'코팅' 과제와 '별표그리기' 과제. '삼각통 만드는' 과제가 끝난 후 두 사람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과제들로 '코팅'과제와 '별표 그리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두 피험자(한 사람은 실험협조자)는 예비뿔기로 두 가지의 과제 중 하나에 배정되는데 모든 피험자는 '코팅' 과제에 배정되며 실험협조자는 '별표그리기' 과제에 배당되었다. '코팅' 과제가 혼자서는 수행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요구되는 과제가 되게 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코팅하게 하였고 위, 아래 양면을 완전히 떼어낸 다음에 코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험자들은 수작업으로 코팅을 하는 용지와 색종이를 제공받았다. 코팅지는 A4용지(가로 21cm, 세로 29.5cm)의 크기로 윗 면과 아래 면이 붙어 있는 용지이다. '별표 그리기' 과제에서는 A4 용지에 차게 두 개의 별표가 그려진 그림 2장이 제공되었다. 그림은 중심을 같이 한 두개의 크기가 다른 별표가 약 5mm의 간격으로 겹쳐지게 하였다. 피험자(실제로는 실험협조자)는 왼손으로 두 개의 별표 사이의 간격에 새로운 별표를 그려넣도록 지시받았다. 이 개별과제들을 하는 동안 실험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고 그때 '별표그리기' 과제를 하고 있던 실험협조자가 자발적으로 '코팅' 과제를 하고 있는 피험자를 도와주거나 그대로 앉아 자기 작업만을 하고 있도록 하였다.

'글자 만들기' 과제. 마지막으로 피험자들은 '글자만들기' 과제를 하였다. 이 과제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설정되었다. 과제를 통해 모사하고자 했

던 오해 상황은 ‘내게 힘든 일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상황에서의 오해는 상대방이 날 도울 수 있는데도 내 힘든 형편을 배려해 주지 않아 섭섭함을 느끼면서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과제 성질이 실험협조자에게는 피험자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피험자에게는 상대방의 도움이 요청되는 힘든 일이어야 했다. 과제에서는 샘플체로 뽑은 자모 활자를 가로 5cm, 세로 5cm의 두꺼운 마분지에 붙여 코팅을 한 활자 카드들이 제공되었다. 글자만들기 과제는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였는데 제공하는 활자의 수를 달리하여 곤란도를 달리하였다. 쉬운 과제에서는 144개의 활자를 제공하며 어려운 과제에서는 90개의 활자를 제공하였다. 어려운 과제에서 제공된 활자의 수는 실험자가 본 실험에 앞서서 서울대 심리학과 대학원생 10명에게 시도해 본 결과 10개의 단어를 만들어 내기에 활자가 1-2개 모자람을 느끼는 수였다. 예비실험으로 곤란도 수준을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모든 피험자는 어려운 과제에 해당되며 실험협조자는 쉬운 과제를 하게 하였다. 과제의 상황이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 상황이 되게 하기 위해 쉬운 과제를 하게 된 피험자(실험협조자)가 글자를 다 만든 후에는 어려운 과제를 하고 있는 피험자에게 자신에게 남아있는 활자를 넘겨줄 수 있다고 지시하였으며 아울러 어려운 과제를 하고 있던 피험자도 과제를 다 끝낸 피험자(실험협조자)에게 남은 활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쉬운 과제를 빨리 끝내버린 실험협조자는 남은 활자를 자발적으로 넘겨주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과제를 하고 있던 상대방이 활자를 요청해 와도 ‘그 활자가 있긴 하지만 혼자 해 보세요’하고 도움 요청을 거절하였다.

실험 절차

먼저 피험자 두 사람(한 사람은 실험협조자임)이 오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성격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부탁을 해서 그러는데 성격검사를 하고 실험을 시작하자”고 하여 친애육구 검사를 실시했다. 친애육구 검사는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검사 후에 본 실험이 “사람들의 여러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과제들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는지를 조사해 보려는 연구들 중의 하나”라고 소개한다. 피험자들이 과제에 몰입하고 자기관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수행 결과에 따라 실험참가 점수에 더하여 추가 점수를 준다고 지시하였다. 세 가지 과제가 소개되는데 첫번째 과제는 실험실에서 낯선 사람과의 사이에 유대를 만들어주기 위한 협동과제였다.

“첫째 과제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하겠습니까. 이 과제는 평상시의 작업 조건과 다른 상황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가고 그 일에 익숙해져 가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과제는 3개의 판지를 갖고 삼각통을 만드는 일입니다. 먼저 이 작업은 판지를 바닥에 닿게 해서 안 됩니다. 말하자면, 손에 들고서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삼각통이 균형 잡혀야 하며 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모서리를 잇는 테일이 주름이 접히거나 우글거리거나 하지 않고 깨끗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2개의 삼각통을 만들어 주십시오. 작업을 하기 위한 대화라면 자유롭게 하여도 좋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작품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교한지를 판단해서 일정 기준에 달하면 실험참가점수 외에 추가 점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대략 10분 내에 끝났다. 이 과제 후에는 작자가 하는 개별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 과제는 두 번째 독립변인인 도움행동에 대한 예상형성이나 예상 없음을 조작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피험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요구되는 코팅과제를 하게 하였고 실험협조자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별표 그리는 과제를 하게 하였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할 작업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색종이를 넣어 코팅하는 일을 하겠고 다른 한 사람은 겹쳐 그려진 크기가 다른 두개의 별표의 사이에 또 하나의 별표를 왼손으로 그리는 일입니다. 먼저 코팅하는 작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코팅지는 윗면을 완전히 밀판에서 떼도록 하십시오. 코팅할 때 될 수 있으면 공기가 들어가서 코팅지가 우글거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코팅지의 네 귀퉁이는 어긋나지 않고 잘 맞아야 합니다.

별표를 따라 그리는 작업은 우선 왼손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떼지 않고 끝까지 그려야 합니다.

다. 그럴 때, 안팎의 윤곽선 밖으로 선이 나가서는 안되며 구불거리지 않고 곧은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별표 그림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2장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이 작업도 앞서 한 삼각통 작업에서처럼 정교하고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작업 시간은 5분에서 6분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서로 도와주고 싶다면 자기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그렇다고 반드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느 일을 하게 될지는 제비뽑기로 정하기로 합시다.”(피험자는 항상 코팅과제를 하게 된다)

잠시 후, 실험자가 “급히 통화할 것이 있었는데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잠깐만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5분간 비운다. 그 사이에 실험협조자는 예상형성 조건과 예상 없음 조건에 따라 피험자의 코팅작업을 도와주거나 자신의 작업을 하고 있는 행동을 한다.

예상형성조건에서 실험협조자는 자신의 일이 끝나지 않았지만 피험자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을 때마다 도와준다. 피험자가 코팅지를 붙이려는 시도를 한 번 했을 때, “내가 지금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 일은 쉬워서 금방 할 수 있어요.”하고 코팅지를 마주 잡아주고 잘 눌러지도록 돕는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자신의 작업을 신속히 해낸다. 그 중간이라도 피험자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시 잡아주어 도와주고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예상 없음 조건에서 실험협조자는 자신의 작업을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해서 늦게 끝나게 한다. 피험자가 코팅지를 붙여서 어느 정도 누르기 시작할 때까지 별표 그리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피험자의 작업이 끝나기 전에 별표 그리는 작업을 끝낸다. 별표 그리는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엔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혹시 처음에 코팅지 붙일 때 피험자가 도와달라고 하면 “내 일을 다 끝내야지요.”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피험자들에게 오해 상황이 설정되는 글자만들기 과제(Clark & Mills, 1979에서 사용한 과제를 응용하였다)를 하게 하였다. 이 과제는 어휘력을 알아보기 위한 과제라고 지시해 주었다.

“이번에는 어휘력을 알아보고자 고안된 간단한 ‘단어만들기’ 과제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어휘력

수준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개의 자모 활자들을 줄 텐데 이 활자들을 사용해서 3자로 된 단어 10가지(예: 고무마)를 정해진 시간 안에 만들어 내는 일이 여러분이 할 과제입니다.

이 과제에는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쉬운 과제는 7에서 스까지의 자음 활자 각각 8개씩과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의 모음 활자 각각 12개씩 해서 모두 144개의 활자를 갖고 과제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과제는 7에서 스까지의 자음 활자 각각 5개씩과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의 모음활자 각각 8개씩, 그 중에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의 모음활자 각각 7개씩 해서 모두 90개의 활자를 갖고 과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전의 연구를 보면 쉬운 과제는 대부분 이 정도 숫자의 활자들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았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과제는 활자가 좀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 중에 누구든지 어려운 과제에 할당된다면 될 수 있으면 받침이 없는 단어를 생각해내는 게 나을 것입니다. 또, ‘ㅈ’와 같이 ‘ㄱ’와 ‘ㄴ’이 합해서 만들어지는 복모음과 같은 것은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 번 사용한 활자카드를 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단어를 만든 후 옆의 메모지에 만든 단어의 이름을 적고 나서 사용한 활자들은 봉투 안에 넣어 주십시오. 그러나, 만든 단어를 취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이름을 메모지에서 지우고 해당되는 활자를 봉투에서 꺼내서 다른 단어를 만드시면 됩니다. 단어는 될 수 있으면 명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누가 어느 것을 하게 될 지를 제비뽑기로 정합시다.”(피험자는 항상 어려운 쪽을 하게 된다)

피험자와 실험협조자는 서로 등을 마주 대고 앉도록 책상을 배치하였다. 실험협조자는 자신의 과제가 다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자모활자를 어려운 과제를 하고 있는 피험자에게 넘겨주거나 피험자의 활자 요청을 들어줌으로써 피험자를 도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지만 모든 조건에서 피험자를 도와주지 않는다.

“지금부터 각자 앞에 있는 자모 활자들을 이용하여 3자로 된 단어 10가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서로 방해가 되니까 단어 이름이 옆 사람에게 들리도록 중얼거린다거나 얘기를 건다거나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정해진 시간 안에 단어를 다 만들어 내면 실험참가점수 외에 추가로 점수를 더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다 같이 과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서

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쉬운 과제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과제를 다 끝내고 난 후라면, 자신이 원한다면 자신에게 남아 있는 자모 활자들을 어려운 과제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넘겨주고 싶다면 과제가 끝난 후 언제라도 책상 위에 있는 빈 메모지에 그 의사를 적어서 제게 전해 주십시오.

한편으로 어려운 과제를 하는 사람도 쉬운 과제를 하는 사람이 과제를 다 끝낸 다음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자모활자를 건네주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를 하는 사람은 3번까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매번 마다 1개의 자모활자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책상 오른쪽 옆에 있는 쪽지에 필요한 활자의 이름을 적어서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상대방에게 그 쪽지를 전해 주겠습니다. 쉬운 과제를 끝낸 사람은 이 요청을 받아 주어도 되고 안 받아 주어도 됩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요청에 대해 자모활자를 제게 전해 주던가 할 말이 있다면 회신을 적어 주던가 하십시오. 말하자면 두 사람간의 통신은 저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신의 과제를 다 한 사람은 손을 들어 제게 표시해 주십시오. 지금은 _____분입니다.”

시작 시간을 체크한다. 6분쯤 후 실험협조자가 다 끝났음을 알리면 실험자는 “수고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자모활자들을 넘겨주고 싶으면 언제라도 메모지에 그 의사를 적어 제게 알려 주십시오.”라고 하고 어려운 과제를 하고 있는 피험자에게 “저쪽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필요한 활자가 있다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 말해 준다.

실험협조자는 피험자를 도와주지 않는다. 처음 쪽지가 실험협조자에게 전해 오면, 실험협조자는 “꼭 활자를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라고 조심스레 묻고는 “그 활자가 있긴 하지만 혼자 해 보세요.”라는 회신을 적어 보낸다. 모든 피험자는 실험협조자가 과제를 끝낸 후 6분 후에 과제를 끝내게 한다.

글자 만들기 과제가 끝난 다음 “방금 끝낸 ‘글자 만들기’ 과제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낀 것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뉘드리는 질문지를 잘 읽어보시고 성심껏 그리고 솔직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옆사람을 개의치 말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대로, 느낀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라고 지시하여 종속측정치를 재는 질문지에 응답

하게 하였다.

질문지를 걷은 후 “개별적으로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여 실험협조자를 먼저 내 보낸 후 피험자에게 실험에 관해 들은 바가 있는지, 지시한 것 외에 실험의 다른 목적에 대해 생각되는 것이 있는지, 또 실험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의문이 나는 것은 없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실험에 대한 사후설명을 하고 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당분간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하였다.

결 과

완성한 단어의 수

피험자들이 12분 내에 만든 단어 수의 평균은 7.85개(표준편차: 1.16)였으며 그 범위는 5개-10개였다. 대부분의 피험자들(82.7%)이 7개에서 9개의 단어를 만들었다. 10개를 다 만든 피험자는 분석된 75명의 피험자 중 5명이었다. 모든 피험자들이 첫번째 도움 요청을 하였으며 대부분이 실험협조자로부터 거절하는 회신을 받은 후엔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예외로 두번째로 요청을 시도하려던 2명의 피험자는 시간이 다 되어서 두번째 요청을 하려는 쪽지를 실험자에게 전하려 할 때 과제를 중단시켰다.

자기참조적인 생각

‘글자 만들기 과제’에서 실험협조자가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 행동을 보였을 때, 상대방의 그런 행동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가보다’란 생각이 얼마나 들게 만들었는지를 0점-5점 척도(전혀 안 들-아주 많이 들)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표 2).

표 2. 친애육구 수준과 예상유무에 따른 자기참조적 생각의 평균

	저친애	고친애
예상없음	1.11(.94)	1.56(.70)
예상있음	.89(.66)	1.53(.77)
전 체	1.00(.80)	1.54(.73)

* ()는 표준편차임.

0점(전혀 안들)-5점(아주 많이 들)의 척도임.

이러한 자기참조적인 생각의 정도에 대해 변량분석을 한 결과(표 3), 친애욕구 수준의 주효과만 나타났고($F=9.11$, $df=1, 71$, $p<.01$: 예언 2), 예언(예언 1)과는 달리 예상유무 변인에 따른 자기참조적 생각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예상 없음 1.32, 예상 있음 1.21). 예언된(예언 2) 대로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친애욕구가 낮은 사람들보다 상대방의 돕지 않는 행동을 보고 '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가보다'란 생각을 더 많이 했다(1.54 대 1.00). 각 예상유무 조건 내에서 친애욕구 정도의 단순효과를 t 검증해 본 결과, 예언 3대로 친애욕구 수준의 주효과는 예상 있음 조건에서의 차이에 기인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예상 없음 조건에서는 저친애 집단과 고친애 집단에 자기 참조적인 생각의 정도가 차이 나지 않았으나(1.11 대 1.56) 예상 있음 조건에서는 의의 있게 저친애 집단보다 고친애집단에서 자기 참조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9 대 1.53; $t=2.71$, $df=36$, $p=.01$ 양방검증).

상대방의 경쟁적 성향에 관한 생각

상대방의 돕지 않는 행동이 피험자로 하여금 '상대방이 경쟁심이 많은 사람이다'란 생각을 얼마나 들게 만들었는지를 0점(전혀 안 듬)에서 5점(아주 많이 듬) 척도 상에서 물어보았다. 그 평균치의 분포가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3. 자기 참조적 생각의 평균에 대한 변량분석의 결과

변량원	자승의 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
예상유무(A)	.27	1	.27	.45	n.s.
친애욕구(B)	5.48	1	5.48	9.11	<.01
A×B	.15	1	.15	.26	n.s.
오 차	42.76	71	.60		

표 4. 친애욕구 수준과 예상유무에 따른 상대방의 경쟁적 성향에 관한 생각의 평균

	저친애	고친애
예상없음	1.42(1.39)	1.50(1.25)
예상있음	1.00(.67)	1.89(1.05)

* ()는 표준편차임.

0점(전혀 안 듬)--5점(아주 많이 듬)의 척도임.

상대방의 경쟁적인 성향에 관한 생각에서는 자기 참조적인 생각을 물어보았을 때보다 변인들의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대로 모든 변인들의 의의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친애욕구 수준의 단순효과를 살펴 본 결과, 자기참조적 생각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상 있음 조건에서 저친애 집단과 고친애 집단 간에 의의있는 차이가 있었다(1.00 대 1.89; $t=3.14$, $df=36$, $p<.01$, 양방검증). 자기참조적 생각이나 상대방의 경쟁성향에 관한 생각이나 모두 상대방의 행동이 예견될 수 있었을 때,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친애욕구가 낮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의 돕지 않는 행동으로 인한 생각들

상대방이 글자 만들기 과제에서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주로 떠올랐던 생각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나를 좋아하나보다' '나에 대한 호감이 그다지 크지 않구나' '(상대방이)경쟁심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어휘력이 너무 없다' '별다른 생각난 것이 없다'의 선지들 중에서 한 가지만 자유 선택하게 했을 때 예상이 있었던 조건(38명 중 각각 21명, 13명)이건, 예상이 없었던 조건(37명 중 각각 18명, 15명)이건 간에 주로 선택된 반응은 '내가 어휘력이 너무 없다'란 생각과 '별다른 생각난 것이 없다'란 반응이었다.

경험된 감정의 종류

상대방이 돕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감정들을 얼마나 느꼈는지를 중다선택하게 하였다. 제시된 감정의 종류들은 '쉽설했다', '불쾌했다', '기분 좋았다', '당황스러웠다', '별로 느낀 감정이 없었다', 그리고 '기타'였다. 이들 감정 중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힘든 일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아서 오해가 일어났을 때 주로 일어나는 감정은 '쉽설했다'이었다(안미영, 1995, 연구 1). 그런데, 본 실험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감정(표 5)은 '당황스러웠다'로 감정을 경험한 전체 빈도의 절반 가량(55.3%)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오해 감정인 '쉽설했다'로 34.0%를 차지했으며 나

표 5. 예상조건에 따른 경험된 감정의 빈도

	예상없음	예상있음
섭섭함	12	20
불쾌함	4	6
당황	25	27
느낀 감정없음	7	5

표 6. 예상유무와 친애욕구 수준 별로 본 '섭섭함'을 느낀 빈도의 분포

	예상 없음		예상 있음	
	저친애	고친애	저친애	고친애
섭섭함느낌	6	6	7	13
섭섭함느끼지않음	13	12	12	6

표 7. 친애욕구 수준과 예상유무 별로 본 '섭섭함'을 느낀 빈도의 분포

	저친애		고친애	
	예상없음	예상있음	예상없음	예상있음
섭섭함느낌	6	7	6	13
섭섭함느끼지않음				

머지가 '불쾌했다'였다. 당황스러웠다는 감정이 가장 많이 경험된다는 것은 글자 만들기 과제의 상황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여건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피험자들이 상대방이 당연히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예상변인에 따라 경험된 감정의 빈도가 다른 것은 없었으며 단지 '섭섭함'의 경험만이 의의도에 가까운 빈도 분포를 보였다($x^2=3.13$, $df=1$, $p=.08$). 친애욕구의 수준에 따라서 경험된 감정의 빈도가 다른 것도 없었다. 그러나, 예상이 있는 조건에서 '섭섭함'의 감정을 경험한 빈도는 친애욕구 수준 간에 차이를 보였다($x^2=3.80$, $df=1$, $p=.05$). 예상유무와 친애욕구 수준에 따른 '섭섭한 감정'의 경험 유무의 빈도 분포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섭섭함'의 감정을 느낀 빈도는 '예상 없음' 조건에서는 저친애 집단이나 고친애 집단이나 같았으나 '예상 있음' 조건에서는 고친애 집단의 피험자들이 저친애집단의 피험자들보다 섭섭한 감정을 더 많이 경험했다(예언 3).

예상변인의 효과(예언 1)를 보기 위해 고친애 집단과 저친애 집단 별로 빈도 분포를 다시 구성하여 보

았다(표 7). 고친애 집단에서는 예상이 있었을 때 섭섭한 감정을 느낀 사람이 예상이 없었을 때보다 더 많았으나($x^2=4.56$, $df=1$, $p=.03$), 예상 유무간의 이런 차이는 저친애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대방이 도와주길 바란 정도

글자만들기 과제에서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었으면'하고 바란 정도를 0점에서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상대방이 도와주길 바라는 정도는 자기 참조적 생각의 정도($r=.28$, $p=.016$)나 상대방의 경쟁적 성향에 관한 생각의 정도($r=.28$, $p=.016$)와 유의 있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도와주길 바라는 바람이 많을수록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방이 도와주길 바라는 정도가 자기 참조적인 생각의 정도나 경쟁적 성향에 관한 생각의 정도의 두 종속측정치들과 유의 있는 상관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도와주길 바라는 정도를 공변인으로 하여 예상유무 변인과 친애욕구 변인 상에서 두 종속측정치들에 대한 변량분석을 각각 해 보았다. 두 경우에서 모두 각 변량원의 효과에는 변화가 없었다.

글자만들기 과제에서 상대방이 도와줄 것에 대한 기대

글자 만들기 과제에서 실험협조자에게 활자를 요청했을 때 얼마나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 예상했는지에 대해서 1점(아주 약간)-5점(아주 많이) 상에 평정하게 하였다. 결과는 조건 간의 차이가 없이 모든 피험자들이 3점 정도로 상대방이 자신을 도와줄 것으로 예상했다고 반응하여 글자만들기 과제가 상대방이 당연히 도울 것이라고 예상하도록 제시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논 의

실험을 통해 나타난 결과들은 첫째,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오해 상황에서 자기참조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며 둘째, 이런 친애욕구 수

준의 차이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예상이 있는 경우에만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셋째, 섭섭함의 오해 감정을 경험한 빈도에 대한 친애욕구 수준의 효과도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예상이 있는 조건에서만 나타났다. 아울러, 도와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상대방이 도와줄 수 있었는데도 도와주지 않을 때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친애욕구가 낮은 사람들보다 그 상대방이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가보다'는 자기 참조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경쟁적인 사람이다'란 상대방의 성향에 관한 생각도 더 많이 하였다.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오해를 더 많이 한다는 것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예상이 있었고 그 예상이 어긋난 조건에서 친애욕구 수준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일어남은 예언(예언 2, 예언 3)했던 바다.

또 다른 결과로는 오해 감정인 섭섭함의 감정을 느낀 빈도에서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들 안에서 상대방이 도울 것이란 예상을 할 수 있었을 때 그런 예상을 할 수 없었을 때보다 막상 그 사람이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섭섭함을 더 빈번하게 느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되었던 예상유무 변인의 효과는 친애욕구가 큰 사람들 안에서 감정을 측정했을 때에만 일어났다.

필자는 상대방의 성향 또는 성격에 대한 재평가와 같은 것은 오해가 일어난 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했다. 오해 유발 행동에 뒷따라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은 '나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란 자기 참조적인 생각이며 그 후에 상대방의 성격이나 성향에 대한 재평가 등이 나올 수 있다고 가정했다. 본 실험에서도 상대방의 경쟁적인 성향에 관한 평정에서는 독립변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자기 참조적인 생각이란 종속변인이 오해를 반영하는 더 직접적인 지표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었을 때,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친애욕구가 낮은 사람들보다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에 대해 자기 참조적인 생각뿐 아니라 상대방의 경쟁적인 성향에 관한 생각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안미영(1995, 연구

8)의 연구에서도 재검되어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친애욕구가 낮은 사람보다 오해 유발행동에 대해 자기 참조적인 생각 뿐 아니라 기타 다른 생각들도 전반적으로 더 많이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친애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대인관계에 더 민감하여 전반적으로 더 많은 정신적인 소모를 함이 시사된다.

가설과 불일치되는 흥미 있는 결과는 친애욕구가 낮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도울 사람이란 예상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그 사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을 때 다른 조건에서보다도 자기 참조적인 생각을 가장 적게 한다는 점이다. 친애욕구가 낮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자신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있어서 막상 실제로 그런 행동이 일어났을 때 자기 참조적 사고가 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 결과된 자기참조적인 생각의 정도는 .89에서 1.56의 범위를 보여서 그 강도가 미약한 것을 볼 수 있다. 실험을 통해 낯선 사람들 간에 상당한 정도의 오해를 만들어 내기에 실험의 효과(impact)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해 준다. 본 실험에 참가한 두 사람은 둘 간의 유대를 만들기 위한 협동과제를 하긴 했어도 여전히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들이다. 감정적인 교류가 없었던 사람들 안에서 상대방이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식의 자기 참조적인 생각이 상당한 정도 일어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생각의 선지들 안에서 상대방이 돕지 않았을 때 떠올랐던 생각을 한가지만 선택하게 했을 때는 자기 참조적인 생각이 거의 선택되지 않았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표출해 내지 않으므로써 쉽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오해를 실험으로 강도 높게 재현해 낼 수 있는 보다 더 창의적인 패러다임의 개발이나 실험 외의 새로운 연구 방법의 모색이 요구된다.

본 실험에서 예상유무 변인의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도울 것이란 예상 형성의 조작은 의의있게 효과를

보였지만 이 효과가 자기참조적 생각의 측정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상대방의 과거 행동이 현재 상황에서의 그의 행동 방향을 예상하게 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 내재해 있는 행동 규범도 상대방의 행동 방향을 예상하게 해 준다. 그렇게 보면 글자만들기 과제에서 상대방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상황이라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암시하고 있는 '상대방이 당연히 도울 것이다'란 행동 규범의 힘이 예상유무변인의 효과를 무효화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피험자들은 예상 형성의 유무에 상관없이 글자만들기 과제에서 첫번째 도움 요청을 할 때 상대방이 도와 줄 것으로 꽤 기대하였고(1점-5점 척도 상에서 3점), 상대방이 도움 요청을 거절했을 때 예상조건에서건, 예상이 없었던 조건에서건 '당황스러웠다'는 감정이 다 같이 빈번하게 경험되었다. 이런 결과는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다'와 같은 오해 상황의 설정에 '상대방이 당연히 도울 것이다'란 행동 규범이 함축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추후에 과거 행동을 통한 예상변인이 오해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설정된 오해 상황 자체가 예상되는 행동의 규범을 내포하고 있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 시사된다.

참 고 문 헌

- 안미영(1993). 사회심리적 현상으로서의 오해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 89-106.
- 안미영(1995). 대인관계에서의 오해과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재호(1983). 동기진단검사. 서울: 전인교육발전연구소.
- 차재호·정지원(1990). 친애욕구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보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 1, 1-9.
- Atkinson, J. W., Heyns, R. W., & Veroff, J.(1954). The effect of experimental arousal of the affiliation motive on thematic appercep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9, 405-410.
- Byune, D.(1961). Anxiety and the experimental arousal of affiliation need.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 660-662.
- Clark, M. S., & Mills, J.(1979). Interpersonal attraction in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2-24.
- Hill, C. A.(1987). Affiliation motivation: People who need people... but in different way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08-1018.
- Hill, C. A.(1991). Seeking emotional support: The influence of affiliative need and partner warm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112-121.
- Jackson, D. N.(1984). *Personality Research Form Manual*. Gosen, N Y: Research Psychologists Press.
- McAdams, D. P.(1980). A Thematic coding system for the intimacy mot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4, 413-432.
- Mehrabian, A.(197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affiliative tendency and sensitivity to rejec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0, 417-428.
- Rosenfeld, H. M., & Franklin, S.(1966). Arousal of need for affiliation in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245-248.
- Shipley, T. E., & Veroff, J.(1952). A projective measure of need for affili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43, 349-356.
- Wong, M. M., & Csikszentmihalyi, M.(1991). Affiliative motivation and daily experience: Some issues on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154-164.

An Experimental Test for a Model for the Interpersonal Misunderstandings Using the 'Betrayal of Intimacy Expectation' Situation

Mi-young Ahn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test an aspect of the model for the interpersonal misunderstandings(Ahn, 1995) through experiment using the 'betrayal of intimacy expectation' situation, in which 'Other doesn't give me help when I needed it'. It was found that the subjects with high need for affiliation had more self-referent thoughts than the subjects with low need for affiliation and this effect of need for affiliation was specially apparent in the condition in which other's help was anticipated. In the same condition, the subjects with high need for affiliation also experienced the emotion of disappointment more frequently than the subjects with low need for affiliation. Within subjects with high need for affiliation, the emotion of disappointment was experienced by more people when they anticipated other's help than when they did not.